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전국 최대 차문화 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성료

다양한 차문화 체험·전시·경연 등 관광객 발길 사로잡아



차향 그윽한 녹차수도 보성에서 지난 18일부터 5일간 '차문화'를 주제로 다채롭게 펼쳐진 전국 최대 차문화 축제인 '제44회 보성다향대축제'가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행사기간 내내 화창한 날씨 속에 싱그러움 가득한 차밭을 자랑하는 보성차밭에서 막바지 봄을 즐기려는 35만여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가 큰 성황을 이루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인 보성다향대축제는 차문화 체험·전시·경연과 공연, 차마켓 등 총 8개분야 50여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올 한해 차의 종원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다신제와 개떡차회를 시작으로 보성차밭과 햇차만들기, 차입맛과 신규 프로그램인 월인천강 차차리, 응접차마루 등이

진행됐다.

또한, 차문화 체험마켓, 차발힐링 트래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운영됐다.

특히, 올해 햇차만들기 체험장에서 사용한 차잎은 지난 동해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차잎이 제공되어 연일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축제 대표 프로그램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올해 수확한 우진차를 무료로 마실 수 있는 '녹차 시음장'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녹차를 구입할 수 있는 '보성차장'에는 우수한 보성녹차를 구입하려는 차 애호가들과 관광객이 연일 붐볐다.

외국인 팸투어가 두차례나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당일 코스로 축제장을 찾은 단체 및 개인 외국인 방문객이 1천여명에 이르러 우수축제의 위상을 실감하게 했다.

차 마니아들과 함께 즐기는 '월인천강 차차리'는 참가자와 방문객 모두를 만족시키며 길러폰텐츠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행사장 구석구석에 숨겨진 차잎모양의 순금, 18k 등의 경품을 찾는 행운의 '보물찾기'가 연일 진행되어 관광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행사장 차품평관에서 열린 올해의 '한국명차 선정대회'에서는 몽중산다원영농조합법인(대표 정경완)이 차맛과 향기 등에서 최고점을 얻어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보성청우다원(대표 안명순), 예성오가닉영농조합법인(대표 권청자), 보성원당제다원(대표 김영욱)이 각각 금상, 은상, 동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차문화의 미래를 이어갈 학생들에게 보성 차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전국학생 차에결정대회와 천연염색체험, 전통차 사발짓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차문화와 함께 축제를 즐기는 장이 됐다.

유현호 군수 권한대행은 "우수축제로 성장한 제44회 보성다향대축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며 지역인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장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제5회 함평천지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성료

함평군이 주최하고 함평군야구협회가 주관한 제5회 함평천지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가 지난 22일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경찰, 군인, 소방, 행정관청 공무원 야구팀 28개 팀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2일간 치러진 본선에서는 14개

팀이 토너먼트로 경기를 펼쳐 해군3함대 네이비트론즈 팀이 경남부지방경찰청 한산포물이 팀을 4대3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공동 3위에는 군산시청 '드림허브' 팀과 영암군청 '뽕-모이' 팀이 올랐다.

박종빈 함평군야구협회장은 폐회사에서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

을 유감없이 뽐내며 열정적인 플레이를 펼쳐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함평은 앞으로 야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올 상반기에 5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남야구장의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함평=김광훈 기자

구례군, 오감만족 프로젝트 야생화 꽃나물 상품 인기

서울 국제차·공예박람회 야생화 꽃나물 홍보부스 성황



구례군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서울 국제차·공예 박람회에 참가해 구례군 대표 야생화 꽃나물을 이

용한 다양한 상품들로 서울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즉석에서 구워 맛보인 썩부쟁이 머핀, 쿠키와 수제차 등을 맛본 관람객들은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진정한 오감만족 상품이다"며, "아이디어에 감짝 놀랐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 박노진 소장은 "창조지역사업 야생화 오감만족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야생

화 꽃나물 6차 산업화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야생화 꽃나물 상품 적극 발굴 개발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더욱 힘을 것이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부산 국제차공예박람회(6.28~7.1), 광주 국제차문화화 진전 시회(10.18~10.21.) 등에 참가하여 구례군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장성군, 약용채소로 화장품 만든다

새싹삼·산마늘 등 약용채소 고부가가치화 활용 방안 다양화



장성군이 힐링 약용채소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약용채소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약용채소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에 선정된 '셀러드 약(藥)채소 특화작목 육성 사업'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여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군은 ▲웰빙·다이어트 음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서 셀러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설립이 국경과제로 선정돼 장성의 이미지와 약용작물이 잘 어울리며 ▲진체 면적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임야 지원이 풍부하다는 데 착안, 지역 특화 약용채종인 새싹삼, 산마늘, 일당귀, 참두릅, 미나리 등 셀러드용 웰빙채소의 재배면적을 확대해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육성 중인 약용채소 중에서 새싹삼의 경우 일반 채소처럼 삶으로 먹기도 하고 주스로 갈아 마실 수도 있는 신개념 웰빙 쌈채로 주목받고 있다.군은 올년도 특산물로서 재배 환경이 까다로운 산마늘 재배에도 성공했다.

군은 약용채소의 구체적인 발전

고흥군, '길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선정

내달 4일부터 총 23회

길 위의 인문학이 오는 6월 4일부터 고흥군립중앙도서관을 찾아온다.

고흥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8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군립중앙도서관과 군립북부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의를 진행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군립중앙도서관(고흥읍 소재)은 6월 4일부터 총 23회에 걸쳐 '마음을 다독이는 글쓰기와 그리기'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본 강의는 '감정 노트'의 김지승 작가를 비롯하여 남선현 시인과 박성환 화가가 강사로 나서서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현대

인들의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다스리는 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 군립북부도서관(동강면 소재)은 7월 3일부터 '물음표와 느낌표로 만나는 여정을 다양한 글로 담기'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재진, 서준호 작가, 김태환 큐레이터 등이 강사로 나서서 물음표, 느낌표 등을 통해 인문학에 접근하고 그 여정을 기록하는 글쓰기 방법이 선보일 예정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흥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부·자문위원회)
 - 유관기관 연계로 통한 상담 무수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면역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